

# ‘밥도둑’이 득실득실한 바로 그곳 ... ‘집밥’의 정성과 사랑도

## 가든그로브 <개나리 본가>, 주류 라이선스 취득 기념 특별 행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속이 비면 어깨가 내려앉고 등이 절로 굽는다. 뱃심 두둑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밥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 정 많은 한국인들은 기운 없이 축 처진 사람에게 ‘밥이 보약이다. 밥 굶지 말고 다니라!’는 말로 위로를 건넨다.

밥심의 원천은 역시 집밥이다. 외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엄마표 집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의 메뉴도 한두 번 먹고 나면 다시 집밥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집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 가족의 정성과 사랑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이다.

가든그로브 <개나리 본가>는 밖에서도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집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든그로브 구 한남체인 몰에 있던 ‘호돌이 식당’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찾아 장소를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어 문을 연 것이 바로 <개나리 본가>이다.

<개나리 본가>는 밥도둑들의 소굴이다. 그 가운데에도 특히 ‘은대구조림’과 ‘갈치조림’ 그리고 ‘묵은지고등

어조림’은 가히 ‘밥도둑’계의 삼총사라 할 만하다.

따끈한 밥 한 술과 알래스카산 은대구를 적당하게 간이 배도록 졸여낸 ‘은대구조림’의 부드러운 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고 눈 앞에 놓인 밥그릇이 작다는 생각이 든다. <개나리 본가>의 ‘은대구조림’ 앞에서는 어느 미식가의 입맛일지라도 포로를 자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개나리 본가>에서는 로컬에서 잡은 은대구는 맛이 덜해 알래스카산만을 고집한다.

도톰한 갈치를 칼칼하게 졸여낸 ‘갈치조림’은 함께 자리한 무까지 맛의 지존을 외칠 만큼 한국인 입맛에 딱! 그만이다. 자작자작한 국물을 떠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배부름도 잊고 자꾸 먹게 된다.

푹 숙성된 묵은지와 고등어의 켈라베레이션 ‘묵은지고등어조림’은 묵은지와 고등어가 찰떡궁합을 이루어 맛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낸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고등어 살과 깔끔한 묵은지가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내며 창조한 칼칼한 그 맛이란. 엄마표 집밥에서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놀이다.



‘호돌이 식당’ 시절의 아구탕, 알찌개, 동태(생태)찌개 등 모든 메뉴도 그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불고기, 닭불고기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도 더했다.

“식구들 먹을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요리를 해요. 한번도 장사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제 더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개나리본가>에서는 주류 라이선스 취득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소주, 막걸리, 맥주 한 병 주문하면 다음 한 병은 1센트에 제공한다. 허까지 삼킬까 봐 걱정이 될 만큼 맛난 안주에 한 잔. 생각만 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 문의: (714) 263-0308  
▶ 주소: 875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뉴저지 포트리에도 위안부 기림비 건립됐다

## 한인학생이 주도 ... 뉴저지주 5번째

뉴저지주 포트리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세워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돼 결성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YCFL)’는 전날 오후 6시부터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서 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 기림비는 뉴저지주에서 5번째로 건립된 것이다.

기림비는 1m 52cm 높이 원형 조형물에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이 새겨졌다. 하단에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를 적어넣었다. 디자인과 추모 시는 모두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고든 M.존슨 뉴저지주 하원의원, 제니스 도밍고 필리핀계미국인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소콜리치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화합하면서 이번 기림비가 학생들의 인권 교육의 장으로 승화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제막식은 시낭송과 기림비 도안 설명, 버겐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YCFL 측은 “많은 한인이 참가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대견해 했고, 일부는 눈물짓기도 했다.”며 “행사장에는 베트남계, 필리핀계 미국인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인 4~5명이 행사장을 찾아 ‘2차 세계대전 기념비 맞은편에 위안부 기림비가 위치하는 것은 안된

다’라는 피켓을 들고와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기림비는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을 본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건립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트리 타운의회로부터 건립안 승인을 끌어냈고, 모금액 3만5천달러가 부족해 제막을 연기하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는 등 우여곡절을 끝에 세워졌다.

SC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 1pm~5pm 토 9am~2pm

LA 213)352-1090  
520 S. Virgil Ave Suit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714)735-8588  
5451 La Palma Ave. Suite 26  
La Palma, CA 90623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